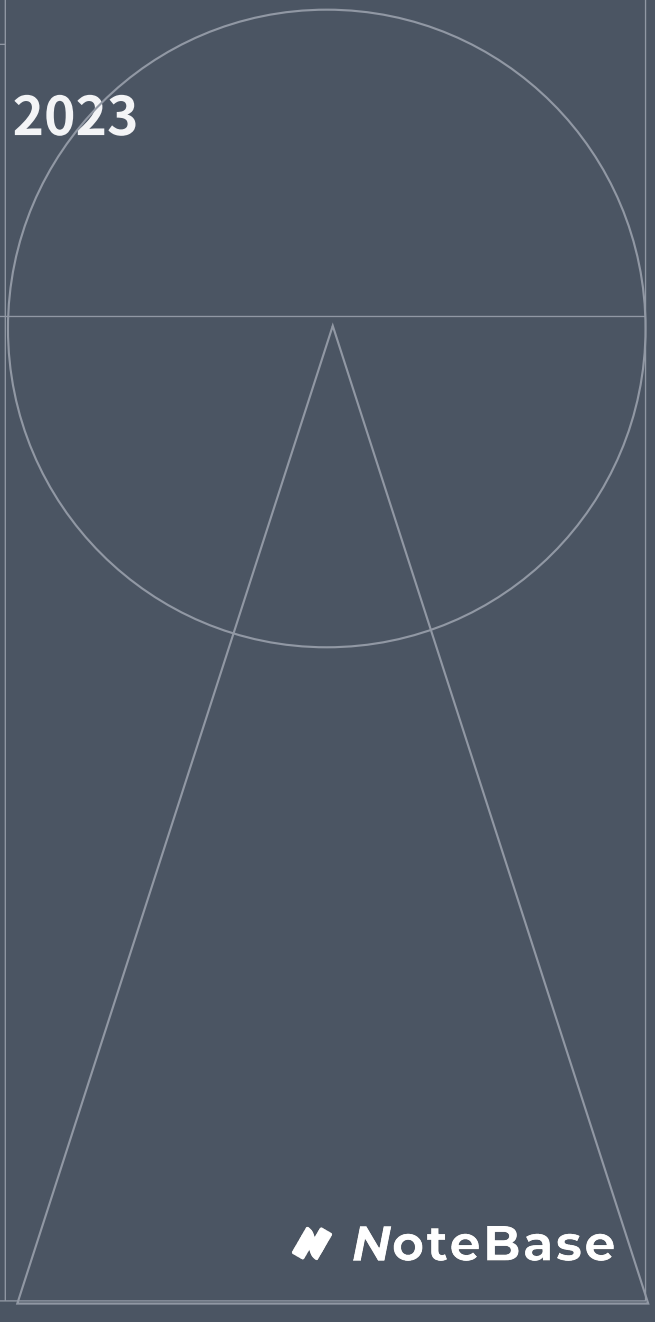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3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3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① 출산 후 붓기가 안 빠진다고 해서 제가 먹었던 건강식품을 권했어요.
   ②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마신다고 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강음료랍니다.
   ③ 어리버리해 보이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사실은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았다더군요.
   ④ 사실 이번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기란 참 어렵지만 아무튼지 그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준어의 형태와 단어의 본래 뜻에 맞는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기가 옳은지는 발음이나 익숙한 쓰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표준어로 인정된 형태와 문맥에 맞는 의미를 함께 확인한다. ‘부기’는 몸이 부은 상태, ‘유명세’는 유명해진 탓에 겪는 불편이나 곤욕, ‘어리바리하다’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야무지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아무튼지’는 ‘아무렇든지’의 준말로 쓰이는 표준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붓기’가 잘못되었다. 몸이 부은 상태를 뜻하는 명사는 ‘부기’이므로 ‘출산 후 부기가 안 빠진다고 해서’로 고쳐야 한다.

② X
‘유명세를 타기’가 잘못되었다. ‘유명세’는 유명해진 대가로 겪는 불편이나 곤욕을 뜻하므로 보통 ‘유명세를 치르다’라고 한다. 이 문맥에서는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강음료’로 고치는 것이 알맞다.

③ X
‘어리버리해 보이는’이 잘못되었다. 표준어는 ‘어리바리하다’이므로 ‘어리바리해 보이는 친구’로 고쳐야 한다.

④ O
‘아무튼지’는 ‘아무렇든지’의 준말인 표준어이다. 어떤 경우이든 그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문맥에도 알맞다.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 자주 들리는 ‘붓기’, ‘유명세를 타다’, ‘어리버리하다’를 익숙하다는 이유로 맞는 표현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반대로 ‘아무튼지’는 낯설어 보여 ‘아무튼’으로 고치기 쉽지만, ‘아무렇든지’의 준말로 인정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지 먼저 확인하고, 단어가 표준어이더라도 문맥에서 본래 뜻에 맞게 결합했는지 따진다. 특히 명사 ‘부기’, 표준어 ‘어리바리하다’, ‘유명세를 치르다’, 준말 ‘아무튼지’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몸이 부으면 ‘부기’, 행동이 어설프면 ‘어리바리’, 유명함의 대가는 ‘유명세를 치르다’, ‘아무렇든지’의 준말은 ‘아무튼지’이다.

NoteBase

2. 다음 중 '쓰다'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양지바른 곳을 묏자리로 썼다.
② 그는 취직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한턱을 썼다.
③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언제나 그 맛은 썼다.
④ 그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쓰다'의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상태를 나타낸다. '쓰다'가 '이용하다', '한턱내다', '누명을 뒤집어쓰다'의 뜻이면 동사이고, '맛이 쓰다'처럼 맛의 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양지바른 곳을 묏자리로 쓰다'의 '쓰다'는 그곳을 일정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이를 형용사로 분류하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동사이다.
② X — '한턱을 쓰다'의 '쓰다'는 남에게 음식 등을 대접한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이를 형용사로 분류하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동사이다.
③ O — '그 맛은 쓰다'의 '쓰다'는 맛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나머지 세 선지의 동사와 품사가 다르다.
④ X — '누명을 쓰다'의 '쓰다'는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쓴다는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이를 형용사로 분류하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동사이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 모두 과거형이 '썼다'로 같아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형태만 보지 않고 문장 속 뜻이 행동·작용인지 성질·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형태의 단어가 제시되면 각 문장에서 그 단어의 뜻을 먼저 바꾸어 본다.
'이용하다·대접하다·뒤집어쓰다'처럼 행동이나 작용으로 풀이되면 동사이고, '맛이 쓰다'처럼 성질이나 상태로 풀이되면 형용사이다.

암기 포인트

행동·작용의 '쓰다'는 동사, 맛의 성질인 '쓰다'는 형용사이다.

NoteBase

3. 다음 중 (㉠)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개발한 휴대용 암 진단기는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몸을 간편하게 스캔해 종양을 진단한다. 원리는 간단하다. 인체의 서로 다른 조직들이 진단기에서 발산되는 마이크로파에 서로 다르게 반향을 보인다. 즉 종양 조직은 건강한 조직과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반향하기 때문에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구별할 수 있다. 물론 이 진단기가 (㉠)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종양의 크기 또는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판별할 수는 없다.

① 變化無雙 ② 無所不爲
③ 先見之明 ④ 刮目相對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진단기가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종양의 크기와 정확한 위치까지 모두 알아내지는 못한다는 문맥에 맞는 사자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소불위(無所不爲)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나 힘을 나타낸다. 변화무쌍(變化無雙)은 변화가 매우 심하여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고,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슬기를 뜻하며, 괄목상대(刮目相對)는 크게 발전한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본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변화무쌍은 변화가 매우 심하고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진단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변화무쌍'이며, 올바르게는 '무소불위'이다.
② O — 무소불위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한 뒤 종양의 크기나 정확한 위치는 판별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한계를 제시하므로 문맥에 가장 적절하다.
③ X — 선견지명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슬기를 뜻하므로 현재 환자의 몸을 스캔하는 진단 능력과 관계가 없다. 틀린 표현은 '선견지명'이며, 올바르게는 '무소불위'이다.
④ X — 괄목상대는 어떤 사람이 크게 발전하여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됨을 뜻하므로 기계가 모든 진단을 해낼 수 있는지와 관계가 없다. 틀린 표현은 '괄목상대'이며, 올바르게는 '무소불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서로 다르게 반향을 보인다’는 앞부분만 보고 변화와 관련된 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의 직접적인 단서는 뒤의 ‘종양의 크기 또는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판별할 수는 없다’이며, 이는 진단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빈칸의 뜻을 구체화하는지 확인한다.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와 같은 내용이 이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뜻하는 무소불위를 부정한 표현이 자연스럽다.

암기 포인트

무소불위는 ‘하지 못할 바가 없음’, 즉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뜻한다.

NoteBase

4. 다음 중 밑줄 친 표기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어긋난 것은?
① 경기도 의정부시 - Uijeongbu-si
② 홍빛나 주무관님 - Hong Binna
③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 Jongno 2(i)-ga
④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서서 - Muryangsujeon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행정 구역명, 인명, 문화재명의 표기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적인 음운 변화 반영 원칙과 인명 표기의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음운 변화는 소리가 이어질 때 본래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핵심 구분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4항은 인명을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도록 하며,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홍빛나'는 발음에 이끌려 'Hong Binna'로 적지 않고 'Hong Bitna'로 적는다. 같은 장 제5항은 행정 구역 단위와 '가' 앞에 붙임표를 넣도록 하고, 제6항은 문화재명을 붙임표 없이 붙여 쓰도록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정부시'는 제3장 제5항의 공식 예시와 같이 'Uijeongbu-si'로 적는다. 행정 구역 단위 '시'는 'si'로 적고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② X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빛나'를 발음에 따라 'Binna'로 적을 수 없다. 틀린 표현: Hong Binna. 올바른 표현: Hong Bitna.
③ O — '종로'는 음운 변화가 반영된 'Jongno'로 적고, '2가'는 제3장 제5항의 공식 예시와 같이 '2(i)-ga'로 적으므로 'Jongno 2(i)-ga'가 맞다.
④ O — 문화재명은 제3장 제6항에 따라 붙임표 없이 붙여 쓰며, '무량수전'의 공식 표기는 'Muryangsujeon'이다.

오답 포인트

'홍빛나'의 실제 발음이 [홍빈나]처럼 들린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음운 변화 반영 원칙을 인명에도 적용하기 쉽다. 그러나 인명에서는 이름 안의 음운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Bitna'가 맞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표기 대상이 인명인지, 행정 구역명인지, 문화재명인지 확인한다. 인명이면 이름 안의 음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 구역 단위이면 앞에 붙임표를 넣으며, 문화재명이면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홍빛나는 소리대로 Binna가 아니라 글자대로 Bitna이다.

NoteBase

5.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네 덕에 생일을 잘 쇠어서 고맙네.
②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③ 나는 식탁 위에 밥을 차릴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게걸스럽게 식사를 해치웠다.
④ 아이가 밖에서 제 물건을 잃어버리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는 애가 칠칠맞다고 타박을 주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 속에서 밑줄 친 어휘의 사전적 의미가 자연스럽게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휘의 쓰임은 문장 전체의 상황과 그 어휘의 정확한 뜻이 서로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칠칠맞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뜻이며, 흐트러지거나 야무지지 못하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칠칠맞지 못하다'처럼 부정 표현으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쇠다'는 명절·생일·기념일 같은 날을 맞아 지내다는 뜻이므로, 생일을 잘 보냈다는 문맥에 적절하다.
② O — '심심하다'는 이 문맥에서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다. '심심한 경의'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O — '게걸스럽게'는 먹을 것을 몹시 탐하여 먹는 태도가 보기 싫게라는 뜻이다. 밥을 차릴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마구 먹어 치운 상황과 어울린다.
④ X — 물건을 잃어버린 아이를 야무지다고 나무라는 것은 문맥상 모순이다. 틀린 표현은 '칠칠맞다고'이며, 올바르게는 '칠칠맞지 못하다고' 또는 '칠칠하지 못하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칠칠맞다'를 평소 자주 듣는 '칠칠맞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적 의미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칠칠맞다' 자체는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긍정적 뜻이므로, ④처럼 실수를 나무라는 상황에서는 부정 표현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만 보지 않고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어휘의 본래 뜻을 넣었을 때 앞뒤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특히 주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이는 말은 부정어가 빠졌는지도 살핀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칠칠맞다 = 반듯하고 야무지다, 야무지지 못하다 = 칠칠맞지 못하다.

NoteBase

6. 다음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근거할 때 본말과 준말의 짝이 옳지 않은 것은?

> <제32항>
>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
> <제39항>
> 어미 '-지' 뒤에 '않 -'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 -'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40항>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① 어제그저께 - 엊그저께
②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③ 만만하지 않다 - 만만잖다
④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준말을 적을 때 줄어든 모음 뒤에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 경우와, '-지 않-'·'-하지 않-' 및 '하'가 줄어드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고 자음만 남으면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제39항: 어미 '-지' 뒤의 '않-'이 줄면 '-잖-'으로, '-하지' 뒤의 '않-'이 줄면 '-찮-'으로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면 거센소리로 적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어제그저께’가 줄 때 모음이 탈락하고 남은 ‘ㅈ’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으므로 ‘엊그저께’가 된다. 제32항에 맞는 짝이다.
② O — ‘그렇지 않은’에서 ‘-지’ 뒤의 ‘않-’이 줄어 ‘-잖-’이 되므로 ‘그렇잖은’으로 적는다. 제39항에 맞는 짝이다.
③ X — ‘만만하지 않다’에는 ‘-하지’ 뒤에 ‘않-’이 이어지므로 준말은 ‘-찮-’이 된다. 틀린 표현은 ‘만만잖다’이며, 올바르게는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이다.
④ O — ‘연구하도록’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과 뒤의 ‘ㄷ’이 어울려 거센소리 ‘ㅌ’이 되므로 ‘연구토록’으로 적는다. 제40항에 맞는 짝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그렇잖은’과 ③의 ‘만만잖다’가 비슷해 보여 모두 ‘-잖-’으로 줄이기 쉽다. 그러나 ‘-지 않-’은 ‘-잖-’, ‘-하지 않-’은 ‘-찮-’으로 구별하므로 ③만 잘못된 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않-’ 앞의 형태를 먼저 확인한다. ‘-지 않-’이면 ‘-잖-’, ‘-하지 않-’이면 ‘-찮-’으로 판단하고, ‘하’ 뒤의 자음이 거센소리로 바뀌는 경우에는 줄어든 표기에 그 거센소리를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지 않- → -잖-’, ‘-하지 않- → -찮-’, ‘ㅎ+ㄷ → ㅌ’으로 기억한다.

NoteBase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진 게 없으면 몸이나마 건강해야지.
② 그 책을 다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③ 그는 그런 비싼 차를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④ 그 고통에 비하면 내 괴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사와 의존 명사,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본용언과 띄어 쓴다. 특히 '데'가 '일·경우·곳'의 뜻을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만, '-는데'가 상황이나 배경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이면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게'는 의존 명사 '것'에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의 준말이므로 관형어 '가진'과 띄어 '가진 게'로 쓴다. '이나마'는 조사이므로 명사 뒤에 붙여 '몸이나마'로 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읽는데'이다. 여기서 '데'는 책을 다 읽는 '일'에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읽는데'로 띄어야 한다. '책을'의 '을'은 조사이므로 붙여 쓰며, 기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 '일'은 수 관형사 '삼'과 띄어 '삼 일'로 쓴다. 올바른 문장은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이다.
③ O — '만하다'는 어떤 행동을 할 가치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본용언의 관형형 '살'과 띄어 '살 만한'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④ O — '따위'는 종류나 부류를 낮잡아 이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고, 조사 '는'은 붙여 '괴로움 따위는'으로 쓴다. '아무것'에 붙은 조사 '도'는 붙여 '아무것도'로 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데'를 연결 어미 '-는데'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삼 일이 걸렸다'와 연결해 보면 '책을 다 읽는 일에 삼 일이 걸렸다'라는 뜻이므로, 이때의 '데'는 의존 명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데'를 '일·경우·곳'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면 의존 명사로 보아 앞말과 띄어 쓴다. 상황이나 배경을 이어 주는 어미 '-는데'이면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운다.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의 ‘데’는 띄어 쓴다.

NoteBase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틀린 것은?

>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 ㉡혁파를 지속적으로, 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덜어주기를 바라는 모래 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경청하고 즉각 혁파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만큼 기업의 고통은 크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규제 총량제, ㉣일몰제 등의 해법을 쏟아내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① ㉠ : 體感
② ㉡ : 革罷
③ ㉢ : 敬聽
④ ㉣ : 日沒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한자어의 뜻을 낱글자의 훈과 연결하여 올바른 한자 표기인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의 음이 같아도 뜻에 따라 쓰는 한자가 달라진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이므로 '기울 경(傾)'과 '들을 청(聽)'을 써서 傾聽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체감'은 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뜻이므로 '몸 체(體)'와 '느낄 감(感)'을 쓴 體感이 맞다.
② O — '혁파'는 묵은 제도나 관습 등을 고쳐 없앤다는 뜻이므로 '고칠 혁(革)'과 '파할 파(罷)'를 쓴 革罷가 맞다.
③ X — '경청'을 敬聽으로 적은 부분이 틀렸다. 敬은 '공경할 경'이므로 여기의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올바른 표기는 '기울 경(傾)'을 쓴 傾聽이다.
④ O — '일몰'은 해가 진다는 뜻이므로 '해 일(日)'과 '잠길 몰(沒)'을 쓴 日沒이 맞다. 따라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는 '일몰제(日沒制)'로 적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경'을 평소 익숙한 敬으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경청'의 핵심 의미는 상대를 공경한다는 데 있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는 데 있으므로 傾을 써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음만 맞추지 않고 문맥 속 단어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각 한자의 훈이 그 뜻을 이루는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경청은 공경할 敬이 아니라 기울 傾이다: 傾聽.

NoteBase

9.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텐데 괜찮을까요?”에서의 ‘-ㄹ텐데’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니 표제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ㄹ텐데’가 방언이기 때문에 표준어인 표제어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② ‘-ㄹ텐데’를 ‘-ㄹ테’와 ‘-ㄴ데’로 분석해서 각각 찾으면 된다.
③ 기본형 ‘-ㄹ테다’를 찾아야 한다.
④ 의존명사 ‘터’를 찾아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어진 형태가 사전에 표제어로 나오지 않을 때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ㄹ 텐데’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의존명사 ‘터’와 ‘이다’의 활용형 ‘인데’가 결합한 ‘-ㄹ 터인데’가 줄어든 표현이다. 따라서 전체 형태인 ‘-ㄹ텐데’가 아니라 의존명사 ‘터’를 사전에서 찾아 그 뜻과 쓰임을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방언이기 때문에’이다. ‘-ㄹ텐데’는 방언이 아니라 여러 문법 단위가 결합하고 줄어든 형태이므로 그 전체가 표제어로 실리지 않은 것이다. 올바르게는 형태를 분석하여 중심 단어인 ‘터’를 찾아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ㄹ테’와 ‘-ㄴ데’로 분석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ㄹ 터인데’의 준말로 보아 관형사형 어미 ‘-ㄹ’, 의존명사 ‘터’, ‘이다’의 활용형 ‘인데’로 분석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기본형 ‘-ㄹ텐다’가 있다는 부분이다. ‘-ㄹ텐데’ 전체에 대응하는 기본형 ‘-ㄹ텐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결합에 쓰인 의존명사 ‘터’를 찾는다.
④ O — ‘텐데’는 ‘터인데’가 줄어든 형태이므로 국어사전에서는 의존명사 ‘터’를 찾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겉으로 붙어 보이는 ‘-ㄹ텐데’를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어미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은 ‘-ㄹ 터인데’가 줄어든 것이므로 ②처럼 표면의 음절만 나누거나 ③처럼 임의의 기본형을 만들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전에 이어진 형태가 없으면 먼저 원래 형태로 풀어 쓴 뒤 어미, 의존명사, 조사 등의 문법 단위로 분석한다.
그다음 뜻을 담당하는 단어를 표제어로 찾는다.

암기 포인트

‘-ㄹ 텐데’는 ‘-ㄹ 터인데’의 준말이며, 사전에서는 ‘터’를 찾는다.

NoteBase

10. 다음 중 아래 글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① 쟁점 제기
② 정서적 공감
③ 논리적 설득
④ 배경 설명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의 서술 방식과 마지막 질문을 근거로 저자의 주된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쟁점 제기는 서로 대립하는 관점이나 판단이 가능한 문제를 제시하여 독자가 생각하고 논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설명한 뒤, 그것이 '반길 일'인지 '재앙'인지 질문하여 인공지능의 명암에 관한 논쟁거리를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인공지능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과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위험을 대비한 뒤,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 질문한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는 인공지능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정서적 공감'이다. 글은 독자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함께 느끼려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인공지능의 이점과 위험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한다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논리적 설득'이다. 글에는 하나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거나 근거 전개가 없다. 올바르게는 상반된 가능성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여 쟁점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배경 설명'이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능력을 간단히 소개하기는 하지만, 글의 결말은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올바르게는 그 소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반길 것인지 경계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을 제기한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글 앞부분에 인공지능의 정의와 능력에 대한 설명이 있어 ④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의 최종 의도는 마지막의 '반길 일인가, 재앙인가'라는 질문에 드러나므로,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쟁점 제기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마지막 문장과 상반된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서로 대립하는 가능성을 질문으로 제시하고 결론을 독자에게 열어 두었다면 '쟁점 제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반된 두 가능성 제시 + 독자에게 판단을 묻는 질문 = 쟁점 제기이다.

NoteBase

11. 다음 중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속담은?

> 춘향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허는디,
> "서방님!"
> "왜야?"
> "내일 본관 사또 생신 잔치 끝에 나를 올려 죽인다니, 날 올리라고 영이 내리거든 칼머리나 들어주고, 나를 죽여 내어놓거든, 다른 사람 손 대기 전에 서방님이 삯꾼인 체 달려들어, 나를 업고 물러나와 우리 둘이 인연 맺든 부용당에 나를 뉘고, 옥중에서 서방님을 그려 간장 썩은 역류수 땀내 묻은 속적삼 벗겨, 세 번 불러 초혼허고, 서방님 속적삼 벗어 나의 가슴을 덮어 주오. 수의 입관도 내사 싫소. 서방님이 나를 안고 정결한 곳 찾어가서 은근히 묻어 주고, 묘 앞에다 표석을 세워, '수절원사 춘향지묘'라 크게 새겨주옵시면, 아무 여한이 없겠네다."
> 어사또 이 말 듣고,
> "오, 춘향아!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내일 날이 밝거드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누가 알랴마는, 천붕우출이라, (㉠) 법이요, 극성이면 필패라니, 본관이 네게 너무 극성을 뵈었으니, 무슨 변을 볼지 알겄느냐?"

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② 웃는 낯에 침 못 뱉는
③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④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어사의 말에 나타난 상황과 '천붕우출'의 뜻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속담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천붕우출'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어려움이 닥쳐도 빠져나갈 길은 있다는 뜻이다. 어사는 춘향에게 지금은 죽음을 앞둔 듯 위태로워도 뜻밖의 살길이 생길 수 있으니 울지 말라고 위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도둑이 제 발 저리는'은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탓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해한다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이 속담을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가 생긴다는 뜻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죄지은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낸다.
② X — '웃는 낯에 침 못 뱉는'은 상대가 좋게 대하면 모질게 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웃는 태도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살길이 생기는 상황과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호의적인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③ X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은 방법이나 과정이 어떠하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목적 달성의 방법을 위기 속의 탈출 가능성과 같은 뜻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④ O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은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벗어날 길은 있다는 뜻이다. '천붕우출'과 어사가 춘향에게 살길이 생길 수 있다고 위로하는 문맥에 정확히 맞는다.

오답 포인트

빈칸 주변의 '날이 밝거든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만 보고 결과나 방법을 말하는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천붕우출'이며,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④의 의미와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속담 빈칸 문제에서는 빈칸 바로 앞뒤의 한자 성어와 인물의 말하기 의도를 먼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천붕우출'의 '큰 위기에도 나갈 길이 있음'과 어사의 위로라는 두 단서가 함께 ④를 가리킨다.

암기 포인트

천붕우출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곧 절망 속에도 살길이 있다는 뜻이다.

NoteBase

12. 다음 작품의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년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 닫 드러라 닫 드러라
> 靑쳥蒻약笠립은 써잇노라 綠녹蓑사依의 가져오냐
>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 無무心심한 白백駒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① '년닙희'의 '닙'은 ㄴ첨가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② '써 잇노라'는 현대국어에서 '-고 있다'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③ '닫'과 '좃는가'의 받침은 당시의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④ '반찬으란'의 '으란'은 현대국어 조사 '이랑'에 해당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근대 국어 자료에 나타난 어휘의 옛 형태, 받침 표기, 진행 표현, 조사의 기능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 잇-'은 동작이나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던 표현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고 있-'으로 나타난다.
옛말을 해석할 때에는 현대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첨가 현상이나 발음대로 적은 표기로 단정하지 않고, 당시 단어의 원래 형태와 조사·어미의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닙'의 'ㄴ'은 첨가된 소리가 아니라 '잎'을 뜻하던 옛말 '닢'이 본래 지니고 있던 첫소리이다. 틀린 표현은 'ㄴ 첨가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며, 올바르게는 '옛말 닢의 본래 첫소리 ㄴ이 나타난 것'이다.
② O — '써 잇노라'의 '-어 잇-'은 동작 또는 그 결과의 지속을 나타낸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를 '쓰고 있노라'처럼 '-고 있-'을 이용하여 표현하므로 설명이 옳다.
③ X — '단'과 '좃는가'의 받침을 모두 당시의 실제 표면 발음대로 적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좃는가'의 ㅅ은 뒤의 ㄴ 앞에서 나타나는 실제 발음을 그대로 옮긴 표기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당시의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것'이며, 올바르게는 '두 표기를 모두 실제 발음의 직접 반영으로 볼 수 없다'이다.
④ X — '반찬으란'의 '으란'은 대상을 특별히 들어 말하는 보조사의 기능을 하며, 현대 국어의 '일랑'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조사 이랑에 해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보조사 일랑에 해당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옛 표기에 현대 음운 변동의 이름을 곧바로 붙이거나, 받침 글자를 실제 발음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으란'을 형태가 비슷한 '이랑'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문맥상 '반찬일랑 장만 마라'의 보조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옛말과 현대말을 대응시킬 때에는 먼저 문맥에 맞게 현대어로 바꾼 뒤, 단어의 본래 형태인지 음운 변동인지, 조사인지 어미인지, 동작의 진행·결과 지속 가운데 어떤 기능인지 차례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어 잇-'은 현대의 '-고 있-', '으란'은 현대의 보조사 '일랑'에 대응한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나) 상대방이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일을 결정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느낌과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 상대방의 말투, 표정, 자세를 관찰하면서 그와 같은 관점, 심정, 분위기 또는 태도로 맞추는 것도 공감에 도움이 된다.

13. 아래 내용을 위 글의 (가) ~ (라)에 넣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는?

> 공감의 출발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했을까를 헤아리며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삽입 문단의 핵심어가 앞뒤 문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악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삽입 문단의 내용이 앞 문장의 논리를 이어받고, 마지막 표현이 뒤 문장의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문단은 공감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앞부분에 이어 공감의 방법을 제시하고, 끝의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이라는 말은 뒤의 '말투, 표정, 자세'라는 비언어적 표현의 구체적 예로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공감의 정의가 처음 제시되기 전의 위치이다. 삽입 문단은 공감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므로 정의보다 먼저 놓이면 글의 전개가 자연스럽지 않다. 틀린 위치 (가) → 올바르게는 공감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이자 구체적인 비언어적 방법을 제시하기 전인 (라)에 넣는다.

② X
(나) 뒤의 문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결과를 설명한다. 삽입 문단의 끝인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과 바로 이어지는 구체적 예도 없으므로 연결성이 약하다. 틀린 위치 (나) → 올바르게는 '말투, 표정, 자세'가 뒤따르는 (라)에 넣는다.

③ X
(다) 앞에서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생각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다) 뒤에서는 공감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이 사이에 공감의 실천 방법을 넣으면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잇는 설명의 흐름이 끊어진다. 틀린 위치 (다) → 올바르게는 이유 설명이 끝난 뒤인 (라)에 넣는다.

④ O
(라) 앞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 삽입 문단을 놓으면 경청하고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의 방법으로 내용이 전환되며, 삽입 문단의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은 뒤 문장의 '말투, 표정, 자세'라는 구체적인 비언어적 표현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삽입 문단 첫 문장의 '공감의 출발'만 보고 공감의 정의가 나오는 (가)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인 연결 표지는 문단 끝의 '비언어적으로 표현'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말투, 표정, 자세' 바로 앞인 (라)가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삽입 문단의 첫 문장과 앞 문장의 관계를 확인한 뒤, 마지막 문장의 핵심어를 구체화하거나 되받는 표현이 뒤 문장에 있는지 찾는다. 특히 일반적 설명 뒤에 구체적 예가 이어지는 위치를 우선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문장 삽입은 '앞에서 문제·이유, 삽입문에서 방법, 뒤에서 구체적 예'의 연결을 확인한다. 이 문항의 연결 고리는 '비언어적 표현 → 말투·표정·자세'이다.

NoteBase

※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 위 증즐가 大平盛代
>
>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
>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 위 증즐가 大平盛代
>
> ㉡잡ᄉᆞ아 두어리마ᄂᆞ눈
>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
> 위 증즐가 大平盛代
>
> ㉣셜온 님 보내옵노니 나눈
> 가시는 ᄃᆞᆺ 도셔 오쇼셔 나눈
> 위 증즐가 大平盛代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려시대에 불리던 노래이다.
② 제목은 <가시리>이다.
③ 고려시대에 누군가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내어 다시 한글로 기록하였다.
④ 후렴구는 궁중악으로 불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가요 「가시리」의 갈래, 전승·기록 방식, 후렴구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에 불린 노래로, 대체로 민간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가시리」에는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는 본사와 '위 증즐가 대평성대'라는 후렴구가 함께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시리」는 고려 시대에 불린 고려 가요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O — 제시된 작품은 첫 구절 '가시리 가시리잇고'에서 제목을 딴 「가시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고려 시대에 누군가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내어 다시 한글로 기록하였다'이다.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의 기록을 찾아 옮긴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한글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O — '위 증즐가 대평성대'는 작품의 내용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 후렴구이며, 고려 가요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어 불리는 과정에서 덧붙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고려 시대의 문헌 기록을 조선 시대에 다시 옮겼다'는 식으로 전승 과정을 바꾸어 놓았다. 핵심은 문헌의 재기록이 아니라 구전 전승 뒤의 한글 기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가요의 기록 시기를 묻는 선지에서는 '고려 시대에 불림 → 입으로 전승됨 → 조선 시대에 한글로 기록됨'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작품 내용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는 궁중 음악 수용 과정에서 붙은 후렴구로 본다.

암기 포인트

고려 가요는 고려에 불리고,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NoteBase

※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ᄂᆞᆫ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ᄂᆞᆫ
위 증즐가 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ᄂᆞᆫ
위 증즐가 大平盛代

㉡잡ᄉᆞ아 두어리마ᄂᆞᆫ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
위 증즐가 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 나ᄂᆞᆫ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 나ᄂᆞᆫ
위 증즐가 大平盛代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나ᄂᆞᆫ'은 '나는'의 예전 표기이다.
② ㉡ : '잡ᄉᆞ아 두어리마ᄂᆞᆫ'의 뜻은 '(음식을) 잡수시고 가게 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③ ㉢ :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의 뜻은 '선하게 살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말이다.
④ ㉣ :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의 뜻은 '서러운 님을 보내 드린다'는 의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시리」에 쓰인 고어와 후렴구의 기능을 문맥에 맞게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고어는 현대어의 겉모양만으로 뜻을 추측하지 않고 앞뒤 문맥과 문법적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작품에서 '나는'은 특정한 사전적 의미 없이 리듬을 살리는 여음구이고, '잡사와 두어리마나는'은 임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 '선하면 아니 올세라'는 임이 서운해하여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셜온 님 보내옵노니'는 서러운 임을 보내 드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 '나는'은 현대어 '나는'의 옛 표기가 아니다. 이 작품에서 특별한 사전적 의미 없이 운율을 형성하는 여음구로 이해해야 한다. 틀린 표현 '현대어 나는의 예전 표기'는 '의미 없이 리듬을 살리는 여음구'로 고쳐야 한다.
② X — ㉡ '잡사와 두어리마나는'은 음식을 잡수시고 가게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이라는 뜻이다. 틀린 표현 '(음식을) 잡수시고 가게 하고 싶다'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 '선하면 아니 올세라'는 선하게 살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임이 서운해하면 다시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뜻이다. 틀린 표현 '선하게 살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은 '임이 서운해하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고쳐야 한다.
④ O — ㉣ '셜온 님 보내옵노니'는 '서러운 임을 보내 드리니'라는 뜻이다. 임과 이별해야 하는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므로 선지의 풀이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나는'을 현대어 대명사로 보거나, '잡사와'를 '잡수시다', '선하면'을 '착하다'와 연결하면 문맥과 어긋난다. 특히 ②와 ③은 소리가 비슷한 현대어에 끌리도록 만든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어 풀이 문제에서는 먼저 이별이라는 작품의 상황을 확인한 뒤, 각 표현을 현대어와의 단순한 음성 유사성이 아니라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로 판단한다. 반복되면서 문장 성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말은 여음구일 가능성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잡사와'는 붙잡아서, '선하면'은 서운해하면, '셜온'은 서러운, '나는'은 여음구이다.

NoteBase

16.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문장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어긋나는 예문은?

> <물음표(?)>
>
>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 [붙임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
>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
>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①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②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③ 주말 내내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④ 노자(? ~ ?)는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 도를 좇아서 살 것을 역설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물음표는 의문문·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 의심이나 빈정거림을 드러내는 말,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에 쓰며, 한 문장 안에서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쓴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음표는 직접적인 물음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 부호이다. 다만 선택적인 물음들이 한 문장 안에서 이어지면 마지막 물음에만 쓰고, 각각의 물음이 서로 독립적이면 각 물음의 뒤에 쓴다. 또한 특정 말에 대한 의심·빈정거림은 소괄호 안의 물음표로, 알 수 없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해당 부분의 물음표로 나타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중학생이냐’와 ‘고등학생이냐’는 한 문장 안에서 이어지는 선택적인 물음이므로 첫 번째 물음 뒤에 물음표를 쓰면 안 된다. 틀린 표현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는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로 고쳐 쓴다.
② O — ‘언제 돌아오세요?’는 돌아오는 때를 묻는 의문문이므로 문장 끝에 물음표를 쓴 것이 맞다.
③ O — ‘대단’이라는 말에 실제 칭찬이 아니라 빈정거림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대단(?)하네요’처럼 소괄호 안에 물음표를 쓴 것이 맞다.
④ O — 노자가 태어나고 죽은 연도를 알 수 없거나 확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와 같이 물음표를 쓴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두 물음을 각각 독립된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두 물음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를 고르는 하나의 선택 질문이므로 물음표는 맨 끝에만 쓴다. 반면 ③과 ④의 물음표는 문장 끝의 질문 표시가 아니라 각각 빈정거림과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음표가 직접적인 질문, 의심·빈정거림, 불확실성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선택적인 물음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면 마지막에만 물음표를 쓰고, 각 물음이 독립된 문장이면 각각의 끝에 물음표를 쓴다.

암기 포인트

선택 질문은 끝에 한 번, 독립 질문은 물음마다 한 번이다.

NoteBase

※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7.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② ㉡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드러낸다.
③ ㉢은 친일파 지식인에 대한 비판 정신을 보여준다.
④ ㉣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이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밑줄 친 표현에 담긴 화자의 현실 인식, 자기 성찰, 미래 지향적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적 표현의 의미는 한 구절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앞뒤 시상과 화자의 태도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시를 쓰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과거·현재·미래의 자아가 화해하며 희망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일본이라는 타국의 공간에 머물고 있음을 자각하는 표현이다. '남의 나라'라는 말에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처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② O - ㉡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앞의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에는 암울한 시대에도 시를 쓰려는 시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드러난다.

③ X - ㉢ '부끄러운 일이다'는 친일파와 지식인을 비판하는 표현이 아니다. 인생은 힘든데 시가 쉽게 써지는 자신의 삶과 태도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 즉 자기 성찰을 나타낸다. 틀린 표현 '친일파와 지식인에 대한 비판 정신'은 '암울한 현실에서 쉽게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성찰'로 고쳐야 한다.

④ O - ㉣ '최초의 악수'는 현재의 '나'가 어둠 속의 과거 자아와 아침을 기다리는 미래 자아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다. 분열된 자아의 화해와 통합을 통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의 '부끄러움'을 시대 현실에 대한 분노나 타인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이 구절의 직접적인 대상은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자기 자신이므로 핵심은 자기반성과 성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의 감정이 누구를 향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주변에 '나', '내', '자신'과 관련된 진술이 이어지면 자기 성찰인지 살피고, 타인이나 집단을 직접 지적하는 근거가 있을 때만 비판 정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끄러움'은 자기 성찰, '악수'는 자아의 화해와 현실 극복 의지이다.

NoteBase

※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는 현실적 자아이고, ⓒ, ⓓ는 성찰적 자아이다.
② ⓐ, ⓑ는 현실적 자아이고, ⓒ, ⓓ, ⓔ는 성찰적 자아이다.
③ ⓐ, ⓑ, ⓔ는 이상적 자아이고, ⓒ, ⓓ는 현실적 자아이다.
④ ⓐ, ⓑ는 이상적 자아이고, ⓒ, ⓓ, ⓔ는 현실적 자아이다.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나타난 여러 '나'를 현실적 자아와 성찰적 자아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적 자아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뇌하는 자아이다. 성찰적 자아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실을 이겨 내려는 의지로 현실적 자아를 위로하는 자아이다.
이 시에서 ⓐ·ⓑ는 현실 속에서 무력하게 침전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는 ⓓ가 내민 손을 받는 대상이므로 현실적 자아이다. 반면 ⓒ는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기다리며, ⓓ는 현실적 자아인 ⓔ에게 먼저 손을 내미므로 성찰적 자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는 무기력과 부끄러움 속에 있는 현실적 자아이고, ⓒ·ⓓ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성찰적 자아이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는 성찰적 자아'라는 분류이다. ⓔ는 ⓓ가 위안의 손을 내미는 대상인 현실적 자아이다. 올바르게는 ⓐ·ⓑ·ⓔ가 현실적 자아이고, ⓒ·ⓓ가 성찰적 자아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를 이상적 자아로, ⓒ·ⓓ를 현실적 자아로 본 것이다. ⓐ·ⓑ·ⓔ는 현실적 자아이며, ⓒ·ⓓ는 성찰적 자아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를 이상적 자아로 보고 ⓒ·ⓓ·ⓔ를 현실적 자아로 묶은 것이다. 올바르게는 ⓐ·ⓑ·ⓔ가 현실적 자아이고, ⓒ·ⓓ가 성찰적 자아이다.

오답 포인트

'악수' 장면의 두 '나'를 같은 성격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는 손을 내밀어 위로하는 성찰적 자아이고, ⓔ는 그 위로를 받는 현실적 자아이다. 또한 ⓒ의 '아침을 기다리는' 태도는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성찰적 자아를 보여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작품에 여러 자아가 등장하면 각 자아의 행동과 관계를 확인한다. 고뇌와 무기력 속에 머무는 자아는 현실적 자아로, 그 자아를 바라보고 위로하거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자아는 성찰적 자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기력하게 침전하고 위로받는 ⓐ·ⓑ·ⓔ는 현실적 자아, 아침을 기다리고 손을 내미는 ⓒ·ⓓ는 성찰적 자아이다.

NoteBase

※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9. 위 시의 제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인의 평소 생각을 특별한 표현 기법 없이 소박하게 나타낸 작품이기에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② 독립지사로서의 저항 정신을 시인의 시적 표현으로 여과 없이 옮긴 작품이기에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③ 조선의 독립이 갑자기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려는 작품이기에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④ 시인으로의 인간적 갈등과 자아 성찰을 담아 어렵게 쓴 작품이기에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목 '쉽게 씌어진 시'가 시적 자아의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을 반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어적 제목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작품이 실제로 전달하는 뜻 사이에 어긋남이 있는 제목이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한다. 따라서 '쉽게'는 단순히 창작이 수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시가 쉽게 써지는 자신에 대한 갈등과 부끄러움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특별한 표현 기법 없이 소박하게 나타낸 작품'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제목은 시를 쉽게 쓰는 일과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을 대비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시인의 평소 생각을 단순히 소박하게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을 반어와 대비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해야 한다.

② X — '저항 정신을 시적 표현으로 여과 없이 옮긴 작품'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이 시는 저항 의지를 직접 외치기보다 '어둠', '아침', '최초의 악수' 같은 시어와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저항 정신을 여과 없이 직접 표출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시어와 내면 성찰을 거쳐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해야 한다.

③ X — '조선의 독립이 갑자기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시대처럼 올 아침'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다림을 나타내지만, 독립이 갑자기 쉽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뜻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어두운 현실을 견디며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희망과 자기 성찰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시적 자아는 삶은 어려운데 시가 쉽게 써지는 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이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시인으로서의 인간적 갈등과 자아 성찰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제목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제목의 '쉽게'를 창작 방식이나 독립의 용이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함정이다. 작품 속 '부끄러운 일이다'에 주목하면 제목이 시를 쉽게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내적 갈등을 반어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의 핵심어가 본문에서 반복되면 그 주변의 정서와 평가를 함께 확인한다. 이 작품에서는 '쉽게 씌어지는 것' 바로 뒤의 '부끄러운 일'이 제목의 의미를 결정하므로, 제목을 자기 성찰과 반어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쉽게 씌어진 시’의 ‘쉽게’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며, 제목의 핵심은 반어를 통한 자기 성찰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의 문맥상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행루오리(幸漏誤罹)는 운 좋게 누락되거나 잘못 걸려드는 것을 말한다. (　　) 걸려든 사람만 억울하다. 아무 잘못 없이 집행자의 착오나 악의로 법망에 걸려들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부정이나 청탁이 개입되기라도 하면 바로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행루오리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한 말이다.

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당국자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② 가벼운 죄를 짓고도 엄혹한 심판관 때문에 무거운 벌을 받으면
③ 가족이나 이웃의 범죄에 연루되어 죄 없이 벌을 받게 되면
④ 현실과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행루오리(幸漏誤罹)의 두 양상인 '행루'와 '오리'를 구분하고, 빈칸 뒤 문장과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행루오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운 좋게 법망에서 빠지는 '행루'와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 법망에 걸리는 '오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빈칸 뒤의 '걸려든 사람만 억울하다'는 다른 범죄자는 빠져나갔는데 자신만 붙잡힌 행루의 상황을 뜻한다. 이어지는 '아무 잘못 없이 … 법망에 걸려들어도'는 오리의 상황을 별도로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같은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당국자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법망을 빠져나가면, 붙잡힌 사람만 억울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행루'의 상황이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② X — '가벼운 죄를 짓고도 엄혹한 심판관 때문에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상황일 뿐,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루를 보여 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 자신만 벌을 받게 되면'이다.
③ X — '가족이나 이웃의 범죄에 연루되어 죄 없이 벌을 받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잘못 걸려드는 오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빈칸 다음 문장인 '아무 잘못 없이 … 법망에 걸려들어도 마찬가지다'에서 따로 설명된다. 빈칸에는 올바르게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면'이 들어가야 한다.
④ X — '현실과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법 자체와 현실의 괴리를 문제 삼는 상황이며, 집행의 누락으로 범죄자 일부가 빠져나가는 행루의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당국자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면'이다.

오답 포인트

③도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행루오리와 관련되어 보인다. 그러나 글은 빈칸에서 먼저 행루를 설명한 뒤, 다음 문장의 '아무 잘못 없이'부터 오리를 설명한다. 빈칸의 위치와 뒤 문장과의 역할 분담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가 두 상황을 묶어 제시할 때에는 각 문장이 어느 상황을 차례로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다른 사람은 빠져나가고 자신만 걸림'은 행루, '죄가 없는데 잘못 걸림'은 오리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행루는 죄인이 운 좋게 빠짐, 오리는 무고한 사람이 잘못 걸림이다.

NoteBase

※ (21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년 3월을 생생히 기억한다.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 알파고가 뭔가 세상에 파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른바 '알파고 모멘텀' 이후 에이아이(AI) 산업은 발전했지만, 기대만큼 성장했다고 보긴 어렵다.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아이(AI) 챗봇이 상용화됐지만, 알파고가 줬던 놀라움만큼은 아니다.

2022년 11월 또 다른 모멘텀이 등장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챗지피티(ChatGPT)다. 지금은 1억 명 이상이 챗지피티를 사용하고 있다. '챗지피티 모멘텀'이라고 불릴 만하다. 챗지피티가 알파고와 다른 점은 대중성이다. TV를 통해 알파고를 접했다면, 챗지피티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챗지피티는 모든 산업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챗지피티는 그 자체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챗지피티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다. 그 이후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다. 챗지피티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수 있다. 오픈에이아이는 챗지피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챗지피티는 '언어 모델'이다. '지식 모델'은 아니다. 챗지피티는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최신 지식은 부족하다. 세상물정은 모르지만, 매우 똑똑한 친구다. 이 친구에게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최신 논문을 주고, 해석을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챗지피티에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챗지피티가 제대로 답변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다양한 산업에 챗지피티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챗지피티가 추론할 정보를 찾아 오는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 정확한 지시를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챗지피티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필요에 맞게 튜닝하는 일 등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챗지피티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에이아이 산업 생태계는 크게 세 개다. 첫째, 오픈에이아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원천기술 기업, 둘째,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서비스기업, 셋째, 특정 도메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스케일에이아이(ScaleAI), 디스틸에이아이(Distyl AI), 퀀티파이(Quantiphi) 등 서비스 기업들이 부상 중이다.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엔 원천기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엘지씨엔에스(LG CNS)도 서비스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서비스 기업이 나와서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1. 다음 중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챗지피티, 이제 서비스다
② 알파고 모멘텀, 그 끝은 어디인가?
③ 챗지피티야말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④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에 주목하라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일부 표현이 아니라 글 전체에서 반복·확장되는 중심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절한 제목은 글의 중심 화제와 필자의 핵심 주장을 함께 압축해야 한다. 이 글은 알파고와 챗지피티를 대비한 뒤, 챗지피티가 대중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으며 원천기술 기업·서비스 기업·특정 분야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AI 산업 생태계와 사업 기회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챗지피티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대중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었고, 이를 활용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과 사업 기회가 등장한다는 글 전체의 흐름을 포괄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알파고 모멘텀, 그 끝은 어디인가?'이다. 알파고는 챗지피티와 대비하기 위한 도입 소재일 뿐이며, 글의 중심은 알파고 열풍의 향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챗지피티, 이제 서비스다'처럼 챗지피티와 서비스 산업 생태계의 확대를 드러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챗지피티야말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만을 제목으로 삼은 부분이다. 챗지피티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내용은 맞지만, 이 선지는 그 사실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뒤에서 강조한 서비스 기업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챗지피티가 서비스 단계로 나아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내용까지 담아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에만 주목한 부분이다. 글은 이들을 생태계의 첫째 유형으로 제시할 뿐, 대형 언어 모델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업과 특정 도메인의 애플리케이션 기업도 함께 강조한다. 올바르게는 빅테크 원천기술 기업을 포함한 챗지피티 기반 서비스 생태계 전체에 주목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지문에 실제로 나온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매력적이다. 그러나 제목은 사실과 일치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의 후반부까지 아우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②는 도입부, ③은 중간의 한 판단, ④는 산업 생태계 세 유형 중 첫째 유형만 확대했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 선택형에서는 도입 사례보다 여러 문단에서 반복되고 결론에서 확장되는 화제를 먼저 찾는다. 그다음 각 선지가 글 전체를 포괄하는지, 특정 문장이나 한 하위 항목만 강조하는지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글의 흐름은 알파고와의 대비 → 챗지피티의 대중화 → 서비스 산업 생태계와 사업 기회의 확대이다.

NoteBase

※ (21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년 3월을 생생히 기억한다.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 알파고가 뭔가 세상에 파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른바 '알파고 모멘텀' 이후 에이아이(AI) 산업은 발전했지만, 기대만큼 성장했다고 보긴 어렵다.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아이(AI) 챗봇이 상용화됐지만, 알파고가 줬던 놀라움만큼은 아니다.

2022년 11월 또 다른 모멘텀이 등장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챗지피티(ChatGPT)다. 지금은 1억 명 이상이 챗지피티를 사용하고 있다. '챗지피티 모멘텀'이라고 불릴 만하다. 챗지피티가 알파고와 다른 점은 대중성이다. TV를 통해 알파고를 접했다면, 챗지피티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챗지피티는 모든 산업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챗지피티는 그 자체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챗지피티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다. 그 이후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다. 챗지피티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수 있다. 오픈에이아이는 챗지피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챗지피티는 '언어 모델'이다. '지식 모델'은 아니다. 챗지피티는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최신 지식은 부족하다. 세상물정은 모르지만, 매우 똑똑한 친구다. 이 친구에게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최신 논문을 주고, 해석을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챗지피티에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챗지피티가 제대로 답변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다양한 산업에 챗지피티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챗지피티가 추론할 정보를 찾아 오는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 정확한 지시를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챗지피티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필요에 맞게 튜닝하는 일 등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챗지피티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에이아이 산업 생태계는 크게 세 개다. 첫째, 오픈에이아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원천기술 기업, 둘째,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서비스기업, 셋째, 특정 도메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스케일에이아이(ScaleAI), 디스틸에이아이(Distyl AI), 퀀티파이(Quantiphi) 등 서비스 기업들이 부상 중이다.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엔 원천기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엘지씨엔에스(LG CNS)도 서비스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서비스 기업이 나와서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2. 다음 중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챗지피티는 알파고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놀라움을 주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은 챗지피티가 모든 산업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③ 챗지피티는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하는 언어 모델이 아니라 최신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 모델이다.
④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이 부상 중이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챗지피티의 특징과 대형 언어 모델 기반 산업 생태계의 내용을 선지와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에 유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챗지피티는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난 언어 모델이지만, 학습 이후의 최신 지식은 부족하다. 대형 언어 모델 기반 산업 생태계는 대형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원천기술 기업, 고객 요구에 맞게 모델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업, 특정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알파고를 TV로 접한 것과 달리 챗지피티는 대중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대중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챗지피티가 알파고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놀라움을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O — 지문에 많은 사람이 챗지피티가 모든 산업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언어 모델이 아니라 최신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 모델'이다. 올바르게는 챗지피티는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우수한 언어 모델이며 지식 모델이 아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학습되어 최신 지식은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④ O — 지문은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기업을 서비스 기업으로 분류하며, 스케일에이아이·디스틸에이아이·퀀티파이 같은 서비스 기업이 부상 중이라고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챗지피티의 장점인 정보 종합·추론 능력을 지우고, 약점인 최신 지식 부족을 '최신 정보 축적'으로 뒤집었다. 지문의 '언어 모델'과 '지식 모델이 아니다'라는 대비를 놓치면 정반대의 진술을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각 선지를 지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하고, '아니다', '부족하다', '우수하다'처럼 방향을 결정하는 표현이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부정형 발문에서는 지문과 반대되는 선지를 최종 답으로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챗지피티는 언어 모델이다. 종합·추론은 강하지만 최신 지식은 부족하다.

NoteBase

2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辯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
>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
>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네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
>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
>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
> 날개야 다시 돋아라.
>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 – 이상, 「날개」

① 가난한 무명작가 부부의 생활고와 부부애를 다루고 있다.
② 농촌 계몽을 위한 두 남녀의 헌신적 노력과 사랑을 보여준다.
③ 식민지 농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려 한다.
④ 자아 상실의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자의 내적 갈등과 '날개'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서술자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러나 사라진 '인공의 날개'를 떠올리며 다시 날고 싶다고 외친다. 이때 '날개'는 무기력한 현실을 벗어나 잃어버린 자아와 삶의 의지를 회복하려는 소망을 상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난한 무명작가 부부의 생활고와 부부애'는 제시된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서술자는 부부 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하지 않고 아내에게 돌아갈지 망설이며 무기력하게 방황한다. 올바르게는 무기력한 삶과 불안정한 부부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은 인물의 내면을 다룬다고 해야 한다.
② X — 농촌 계몽을 위해 헌신하는 두 남녀와 그들의 사랑은 제시된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도시를 방황하는 서술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갈 의지를 되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해야 한다.
③ X — 식민지 농촌의 가혹한 현실이나 농민의 생활상은 제시된 글의 배경과 주제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무기력한 개인의 내면적 방황과 자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보여 준다고 해야 한다.
④ O — 서술자는 아내에게 돌아갈지 망설이는 등 무기력한 현실에 갇혀 있지만, 마지막에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라고 외친다.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와 삶의 의지를 회복하려는 소망을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다른 작품에서 흔히 다루는 생활고·농촌 계몽·식민지 농촌 현실을 끌어온 선지이다. 이 글의 결정적 단서는 부부의 객관적 처지보다 서술자의 내적 방황과 마지막의 '날개' 이미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이해 문제에서는 선지의 시대·공간·인물 관계가 본문에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어 결말의 반복 표현과 중심 상징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연결하면 주제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기력한 방황에서 '날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흐름은 자아와 삶의 의지를 되찾으려는 소망을 뜻한다.

NoteBase

24. 다음 글을 읽고 필자의 서술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 겨울철에 빙판이 만들어지면 노인들의 낙상 사고가 잦아진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근육 감소로 인한 순발력 저하로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사고를 당하면 운동이 부족해져 그나마 남아 있던 근육이 퇴화하고 노화가 빨라진다. 건강수명은 대부분 거기서 끝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에게 적극적으로 근력운동을 처방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라.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① 논리적
② 회고적
③ 비판적
④ 동정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필자의 서술 태도는 글에 드러난 내용 전개 방식, 평가 표현, 대상에 대한 정서로 판단한다. 이 글은 노년층의 낙상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설명하고 비판하며 안타까워한다.

핵심 개념

논리적 태도는 원인과 결과, 근거와 결론이 이어지도록 내용을 전개하는 태도이다. 회고적 태도는 과거의 경험이나 일을 되돌아보며 서술하는 태도이다. 비판적 태도는 대상의 문제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이고, 동정적 태도는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글은 근육 감소가 낙상과 회복 저하로 이어지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므로 논리적 태도가 드러난다. '논리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논리적 태도가 드러난다'이다.
② O — 필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지난 일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따라서 회고적 태도는 이 글의 서술 태도와 가장 거리가 멀다.
③ X — 노년층에게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처방하지 않는 현실과 요양 병원의 증가를 지적하므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비판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사회적 대응의 문제를 비판한다'이다.
④ X — 노인의 낙상과 그 결과를 '참으로 무서운 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하므로 노년층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동정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노년층의 처지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이다.

오답 포인트

글이 노년층의 현실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적 태도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노년층'은 글의 대상일 뿐이며, 필자가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장면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태도 문제에서는 먼저 평가 표현과 내용 전개를 확인한다.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면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 비판적,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면 동정적,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면 회고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회고적 태도의 핵심은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봄'이다. 단순히 노년이나 지나간 일을 소재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회고적 태도가 되지는 않는다.

NoteBase

25.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비즈니스 화법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할 때 결론부터 말하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면 짜증이 난다. (가) 현실은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즈니스 사회다. 때로는 일부러 결론을 뒤로 미뤄 상대의 관심을 끌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의 라이벌 동료와의 관계처럼 자기와 상대의 힘의 균형이 미묘할 때이다.
>
> 당신과 상사, 당신과 부하라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대응이 항상 사무적이 된다.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나) 같은 사내의 인간관계라도 라이벌 동료가 되면 일을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권력관계에서의 차이가 없는 만큼 미묘한 줄다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력관계가 미묘한 상대와의 대화에서 탁월한 최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클라이맥스 법'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미묘한 줄다리기를 요하는 연애 관계에서도 초기에는 클라이맥스 법이 그 위력을 발휘한다.

① 그러므로 - 그러므로
② 하지만 - 하지만
③ 하지만 - 그러므로
④ 그러므로 - 하지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조인지 인과인지 파악하여 알맞은 접속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하지만’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거나 예외 관계일 때 쓰는 접속 표현이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나 근거이고 뒤의 내용이 그 결과나 결론일 때 쓰는 접속 표현이다.
(가)에서는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인 조언과 ‘상대와의 힘의 균형이 미묘하면 일부러 결론을 미룰 때도 있다’는 예외적 현실이 대조된다.
(나)에서는 ‘상하 관계가 분명하면 대응이 사무적이다’라는 상황과 ‘라이벌 동료 사이에서는 미묘한 줄다리기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대조된다. 따라서 두 자리 모두 ‘하지만’이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그러므로’와 (나)의 ‘그러므로’가 모두 틀리다. 두 빈칸의 뒤 문장은 앞 문장의 결과가 아니라 앞의 일반적 내용과 대조되는 예외를 제시하므로, ‘하지만 - 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가)는 결론부터 말하라는 조언과 결론을 미뤄야 하는 현실을, (나)는 사무적인 상하 관계와 미묘한 라이벌 관계를 각각 대조하므로 ‘하지만 - 하지만’이 알맞다.
③ X — (가)의 ‘하지만’은 알맞지만, (나)의 ‘그러므로’가 틀리다. 라이벌 동료와의 관계는 앞서 말한 사무적 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그와 대조되는 경우이므로, (나)는 ‘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나)의 ‘하지만’은 알맞지만, (가)의 ‘그러므로’가 틀리다. 미묘한 힘의 균형 때문에 결론을 미루는 경우는 결론부터 말하라는 조언의 결과가 아니라 예외이므로, (가)는 ‘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 뒤에 결론을 미루는 ‘이유’가 나오고 (나) 뒤에 라이벌 관계에서 줄다리기가 필요한 ‘이유’가 나온다고 보아 ‘그러므로’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접속어는 바로 뒤 문장 내부의 인과가 아니라 빈칸을 경계로 한 앞 문장과 뒤 문장 전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곳 모두 그 관계는 인과가 아니라 대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를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뒤 내용이 앞 내용의 결과이면 ‘그러므로’, 앞 내용과 반대되거나 예외를 제시하면 ‘하지만’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결과는 ‘그러므로’, 반대·예외는 ‘하지만’이다.

NoteBase